

한국장애인개발원

인권 자료실		
78 5/21	A4	199

수신 : 가 언론사

발신 :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우 :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02호

전화 : (02) 393-0661(대) / 팩스 : (02) 393-0782

제 목 : 휠체어장애인 실태조사 보도의뢰의 건

보 도 자 료

휠체어장애인, 한 달에 세 번도 외출못해

대중 교통수단 이용 불가능해, 제도적 배려 아쉬워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외출하지 못하고 이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외출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지하철 사용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한빛 장애인이동봉사대에서 장애인 이용회원 대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말 까지 설문지 조사작업을 해서 132명의 응답을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

휠체어장애인들의 외출현황을 보면, 한 달에 평균 외출빈도는 '월 1회 이하'가 33%이고 '2-3회'는 32%로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월 3회 미만'의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이유로는 '마땅한 교통편이 없고'(33%), '몸이 거동하기 힘들어서'(26%)로 응답해, 많은 휠체어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이 가능하고 또 이동 시 도움이 있다면 더 자주 외출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히 나갈 곳이 없어서'(23%)도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휠체어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휠체어장애인들의 외출목적은 모임참석이 가장 많았고, 진료와 개인용무 순이었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이동봉사대의 차량이 27%로 가장 많았고, 택시와 주위의 자가용 운전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모임지원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0%로 이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휠체어장애인들의 운전봉사자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만족스럽다'(45%)와 '대체

로 만족스럽다'(44%)로 99%의 휠체어장애인들이 만족의 의사를 표현했다. 휠체어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봉사자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앞으로 휠체어장애인들의 외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운전자들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잘 예시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휠체어 장애인들의 생활형편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이용회원들(71%)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가구당 수입이 월 50만원 이하로 응답했다. 응답자 본인이 인식하는 생활형편도 '하'가 58%로 자택을 가진 사람들보다 전세, 영구 임대아파트, 친척등의 집에 사는 무료거주자가 많았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직업을 가져 본 적이 전혀 없는'(57%) 분이 대다수이며 전에 직업을 가졌어도 현재 없는 사람(28%)과 현재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85%)이었다. 이런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월 1만원이하의 교통비로(51%) 외출을 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택시를 이용하기가 거의 어려워서 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이들의 외출을 돕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별첨)

장애인 설문조사 보고서

-장애인들, 연걸이 잘 안될까 걱정 많아-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가 1993년 발족한지 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이동봉사대에서는 나름대로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해 그 노력의 일환으로 12월 1일부터 1998년 1월 30일까지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작업을 했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작성하여 반응하는 것과 기획위원들의 전화면접조사였다. 응답자수는 총 132명이다.

<응답자 배경>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20대와 40대였다.

@ 성별로는 여자가 42%이고 남자는 58%로 남성 이용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혼자는 32%이지만 미혼자가 64%에 이르러 미혼자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미만이지만 이혼과 별거상태도 많아 장애인들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많음을 보여준다. 월간 '적수'에서 한 적수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가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더 현저히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 학력은 고졸이 32%로 가장 많고, 대졸이상은 12%며, 반면에 학력이 전혀 없음도 17%나 되어 바깥출입이 부자연스러운 휠체어 사용의 장애인들에게는 일반인들에 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종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으며, 다음은 천주교와 불교 순인데, 종교가 없다는 사람도 16%나 되었다.

@ 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57%로 '전에 다닌 적이 있다'는 사람(28%)과 합치면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이 81%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이용회원들의 가족 수는 4명 이하이며 이들의 71%는 생활보호대상자이다. 가구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50-100만원이 33%로 대부분의 가구는 50만원미만의 저소득층이다. 응답자 본인이 인식하는 생활형편은 '하'가 58%로 자택을 가진 사람들보다 전세나 영구 임대 아파트 친척 등의 집에 사는 무료거주자가 많았다.

@ 이용회원들 중 1급 장애가 81%를 차지하는데 이동봉사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단체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의 외출 현황>

장애인들이 한 달에 평균 외출하는 빈도는 '월 1회 이하'가 33%이고 '2-3회'는 32%로서 대부분의 이용회원들이 '월 3회미만'의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이유로는 '마땅한 교통편이 없고'(33%), '몸이 거동하기 힘들어서'(26%)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나갈 곳이 없는 사람들'(23%)도 많아 사회적 활동이 미비함을 보여준다.

이들이 외출하는 주목적은 모임참석이 가장 많았고 진료와 개인용무 순이었다.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한빛이동봉사대 차량이 27%로 많았고 택시와 주위의 자가용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거나 모임지원차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0%로 이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들의 한달 평균 교통비로는 1만원 이하가 51%를 차지한다.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차량이용 현황>

운전회원의 대부분이 이동봉사대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 된 반면 이용회원들은 다른 장애인을 통해(69%) 가장 많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회원들이 외출 시 이동봉사대를 이용하는 횟수는 월 4-5회 이상이 10%이고 이들이 봉사대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동봉사대 차량이 편리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다른 교통을 이용할 경제력이 없어서'도 21%나 되었는데 '운전봉사회원과의 만남이 즐거운 사람'도 7%나 되었다.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이용실태>

@ 불편사항

'신청하고도 연결이 안될지 몰라 걱정이 된다'(4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화신청이 잘되지 않는다'(16%)로 차량봉사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 운전회원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스럽다'(45%)와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44%로 대체로 이용회원들은 운전회원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운전회원들이 예약시간에 정확히 왔으면 좋겠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면', 그리고 '운행 중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다.

@ 본부연결직원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연결이 안되면 하루 전에는 알려주었으면'(43%)와 '연결을 잘해주시기를'(33%)을 바라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이동문제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본부에 건의할 사항

'연결을 잘 해주도록 체계를 잘 갖추었으면'(38%), '전용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있었으면'이 33%였다. 동행봉사자의 확보도 11%나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동행봉사자들의 확보도 본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 동행봉사자의 여부

차량이 없는 동행봉사자가 있으면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이용회원은 46%였으나 없거나(35%) 불가능하다(19%)는 이들도 많았다.

@ 후원금

이용회원 중 '후원금을 내고 있다'가 52%이나,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도 47%나 되고 있다. 내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력이 없다'(35%)가 많고 '이용회원 후원금제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23%), '은행이나 우체국을 가기가 어려운 점'(20%)도 꼽히고 있다.

또한 후원금을 내는 횟수에 대해서는 '이용할 때마다 내고 있다'(40%), '경제적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25%), '이용하고는 상관없이 매월 내고 있

연결컴퓨터

호스팅서비스

고'(11%), '서너 번 이용하고 나서 한번에 낸다'(9%)는 순이었다.

그러나 후원금을 내지 않는 회원들의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71%)이며 다른 대중교통처럼 국가
에서 장애인 이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14%)도 나왔다.